

# 노란봉투법, 대기업 흔들는 '하청 교섭' 폭탄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노동 시장의 상생과 약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입안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을 뒤흔드는 '대기업 하청 교섭 폭탄'이 되고 있다. 법안 통과 당시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우려했던, 대기업 원청을 향한 하청 노조의 연쇄 교섭 요구와 파업 리스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닌 엄연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직접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기업들은 준비되지 않은 다중 교섭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인 피엔에스모리스 노조 역시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공식적인 교섭 요구안을 전달

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초과 이익분의 일부를 활용해 협력사 직원들에게 1인당 500만~600만 원 상당의 상생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적 무기를 쥔 하청 노조는 이제 시혜성 장려금이 아닌, 원청의 영업이익과 연동된 정당한 'N% 성과급 분배'를 관리로써 요구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이익을 직접 나누자는 이들의 요구는 기존 노사 관계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뒤 6월 5일까지 431개 원청이 1137개의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중재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전반이 거대한 교섭 요구의 파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기업 현장의 노무담당자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하청 노조와의 교섭은 본사 직원 노조와의 협상보다 구조적으로 몇 배나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원청 기업에 얽힌 하청업체의 수와 노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 설령 대표교섭 노조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노조

의 파편화된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하청 노조들이 '성과급 차별 철폐'와 같은 이슈를 전면에 들고 나오면서, 원청 노무팀의 업무는 해법이 없는 '풀기 불가능한 숙제'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한 인력과 비용의 급증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갉아먹는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대기업들이 다발성 노사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끝없는 교섭과 소송 비용, 그리고 교섭 결렬 시 닥쳐올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리스크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안정을 지향해야 한다. 지급처럼 원·하청 간의 계약 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구조 하에서는 기업도, 하청 노동자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혼란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 정의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인한 경영 마비를 막을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지부장 yjh@metroseoul.co.kr

## 모두가 주식을 말할 때



기지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포모(FOMO·소의 공포) 와서 삼전 뒀어." 최근 만난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평소 주식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주가가 연일 오르자 결국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뒤쳐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증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시장이 반등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9000 시대'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

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투자자들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는다. 잠재됐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것 자체는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이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증시 활황이 투자 수요를 자극한 결과다.

상승장에서는 위험보다 기회가 먼저 보인다. 계좌 수익률이 오르는 동안에는 대출이자 부담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조금만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은 투자 판단을 더 낙관적으로 만든다.

문제는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시장은 수차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다. 시장이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등장했지만 조정장이 시작되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자들이었다. 수익은 사라져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증시와 실물경제의 온도 차다. 주식시장은 활황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채값경기는 아직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자본시장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는 경제에 필요한 요소다. 다만 상승장의 열기가 위험에 대한 경계심마저 지우서는 안 된다.

시장에는 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특히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는 위험이 잘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함이 아니라 냉정함이다. 상승장의 환호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yu115@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6일 (음 5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0년생 남을 무서히는 말 등을 내뱉지 마세요. 72년생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84년생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9년생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일 때입니다. 61년생 근신하며 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3년생 남쪽으로 향하세요. 85년생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50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2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74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세요. 86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51년생 주위 사람들과 같이하는 일에 이득이 있겠습니다. 63년생 여행수는 길합니다. 75년생 적당한 운동을 하여 심신을 단련하세요. 87년생 내가 가진 모든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52년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64년생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76년생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88년생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53년생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65년생 가정에는 기쁜일이 생겨 행복한 일입니다. 77년생 모든 운이 길합니다. 89년생 작은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4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6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8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0년생 뒷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55년생 지혜가 필요한 운입니다. 67년생 골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79년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1년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투자를 가지세요.



56년생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68년생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0년생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92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9년생 혼자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1년생 꾀하는 일마다 마(魔)가 서러 있습니다. 93년생 헛된 꿈이나 욕망은 삼가 하도록 하세요.



5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법입니다. 70년생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8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94년생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59년생 생소한 일은 되도록 삼가하세요. 71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83년생 오랫동안 해왔던 고인이 주변사람에 의해 해소됩니다. 9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운이 있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아라비안나이트

중동의 강자로 불리는 이란은 우리에게 뉴스에서는 늘 미국과 충돌하고 종교 문제가 복잡한 나라로 묘사된다. 뭔가 복잡하고 낯설어 보이는 이란이지만 천일야화, 즉 아라비안나이트를 떠올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사용하는 알라딘, 알라바바 같은 친숙한 이름은 아라비안나이트에서 나온 것이다. 아라비안나이트는 지혜로운 여인 셰에라자드가 잔혹한 왕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며 목숨을 부지한다는 설정의 문학작품이다. 이 작품의 설정은 고대 페르시아의 이야기책에서 유래했다.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의 뿌리다. 이란을 이해하려면 고대 페르시아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수천 년 동안 서아시아 문명을 이끌었던 거대한 제국으로 고대 세계를 대표하는 초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다.

오늘날의 이란은 물론이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지배한 거대한 나라였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영토를 지배했던 페르시아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면서 통치했다. 역사가들은 페르시아를 고대 행정국가의 원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거대한 도량,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제도, 우편 체계 같은 행정 시스템은 로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의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이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오랜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도 이란의 힘이다. 이란은 옛 페르시아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역사 속의 강국은 대부분 옛 시대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한다. 페르시아 제국이 과거에 위대했던 이유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넓은 품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란이 찬란했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포용하는 모습을 떠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옆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 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9	4	8	1	6	8
1	7	8	2	9	6	8	5
8	6	1	1	5	7	9	2
7	8	6	9	2	8	1	1
8	9	1	2	7	6	8	5
5	7	1	1	2	8	9	9
9	8	8	1	6	1	9	2
6	1	2	9	8	7	9	1
1	2	9	8	9	8	1	4

6	4		7	1			2	8
7								3
9	2		4			7	8	
						3		5
			8	6	5			
1		9						
	5	7		9			6	3
	3							9
4	9			8	6		5	7

1	9	8	8	2	6	7
6	7	8	1	9	8	9
8	9	2	1	6	7	1
7	1	9	2	8	6	1
2	6	7	9	8	1	8
9	1	8	8	1	6	7
1	8	1	9	7	9	2
9	8	6	7	2	8	1
8	2	9	6	1	1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3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